수입선 다변화제도 개정 추진에 대한 전자산업계의 애로 및 건의

본 회

1. 수입선 다변화제도 개정 추진에 대한 전자업계의 애로요인

1) 일본은 전자제품의 70~80%를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어 동 규정의 개정은 수입선다변화제도를 완전 해제하는 효과를 가져옴

태국, 중국, 필리핀, 말레이지아 등 동남아 지역은 이 지역의 싼 노동력과 일본 기업의 선진 기술진이 파견되어 저가의 가전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일본 전자제품 생산액의 약 60% 정도) 일본 전자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고가의 가전제품보다는 우리제품과 가격경쟁이 쉬운 동남아산 가전제품을 대량으로 한국에 공급함으로서 수입선 다변화제도를 무력화 시킨뒤 고가품의 자국상품을 상륙시키는 2단계 작전을 시행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조치는 수입선 다변화제도의 전면 해제와 똑같은 결과를 초래케되어 우리 가전산업의 기반이 일시에 붕괴될 우려가 있다.

이미 한국은 동남아 지역으로부터 수입이 연평균 45.4%로 급증하고 있어 동 규정의 완화로 일본산의 유입이 자유로워질 경우 더욱 빠른 속도로 수입이 증가될 전망이다.

2) 동남아산 일제 대비 우리제품의 가격경쟁력은 크게 열세

일본 기업의 해외 생산 현황

(단위 : 천대, %)

구 분	총생산량		일본지역		해외생산	
		비 중		비 중		비 중
C - TV	49,656	100	7,230	14.6	42,426	85.4
VCR	29,926	100	7,997	26.7	21,929	73.3
테이프레코더	55,023	100	14,342	26.0	40,681	74.0
스테레오셋	14,800	100	2,616	17.7	12,184	82.3
카 오 디 오	28,301	100	17,701	62.5	10,594	37.5

일본 기업의 해외투자 현황

(단위 : 건, 명)

지 역	법 인 수	구성비(%)	종업원수
전 체	1,062	100	766,204
아 시 아	690	65	559,509
유 럽	138	13	56,715
북 미	194	18	123,215
기 타	40	4	19,676

태국, 말레이지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재료비에서 우리 제품의 85% 수준이나 간접세 등 종합적인 가격경쟁력은 70~80% 수준이다.

3) 미국, EU 등 선진국의 반덤핑 재소시 원산지 판정기준은 현지 부가가치율 60%를 적용하고 있어 이를 무역장벽으로 활용

미국, EU 등 선진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은 부가가치율이 최고 60%로 우리전자산업이 해외투자를 통해 수출시 반덤핑관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데 NAFTA 지역에 투자시 C-TV, 컴퓨터 등에 대하여는 원산지 판정기준에 부가가치율 50%로 규정하고 있어 그 지역의 특정 부품을 사용토록하고 그 이하의 경우는 한국의 우회 수출로 규제하고 있다.

이와같은 선진국은 필요할 경우 원산지 판정기준에 현지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앞서 동 기준 적용을 배제코자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4) 대일 무역역조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한층 더 전자산업의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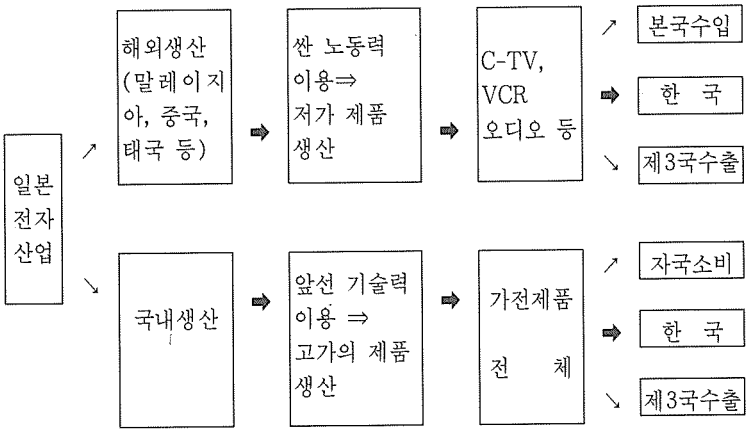
수입선다변화제도의 근본취지가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대일 무역역조를 개선하는데 있으나 급격한 기술혁신으로 여전히 핵심부품의 대일의존과 대일수출의 어려움 등으로 대일 무역수지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일시에 수입급증, 수출둔화로 무역수지를 더욱 악화시킬 전망이다.

5) 소비자들의 높은 일제 선호도와 유통시장 개방이 이번 조치와 맞물려 우리 전자산업의 내수 시장을 상실할 우려

96년 유통시장의 전면개방으로 일본기업의 한국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데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일본제품 선호도는 73%로 다변화 제도의 일시 해제는 국내 가전산업의 붕괴를 재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시장개방시 국내제품을 지속해서 사용하겠다는 소비자는 불과 30%로 나타났고 상황에 따라서 외제를 사용하거나 처음부터

일본 전자산업의 생산, 공급 구조



가전산업의 대 동남아지역 수입 현황

(단위 : 천불, %)

품 목	'90	'93	'95	연평균증가율 ('90/'95)
가 전 산 업	48,103	149,228	313,082	45.4
C - TV	3,376	3,751	11,934	28.7
V C R	1,505	2,726	5,369	29.0
오 디 오	24,939	111,923	208,605	52.9

동남아산 제품과 국산제품과의 가격 비교

(단위 : 천원)

품 목	규 격	국산제품	동남아산 일본제품	국산대비 비 율
C - TV	29″	1,163	835	71.8
V C R	HiFi	482	379	78.6

선진국의 원산지 판정기준(부가가치 기준)

국 가	부가가치율	적용품목	비 고
한 국	35%	C-TV, VCR 등	수입선 다변화제도
미 국 (NAFTA)	50%	C-TV, 컴퓨터	우회수출 규제 적용
		C-TV 등 30개품목	특정부품을 사용토록 함
E U (GSP)	60%	C-TV, VCR, 오디오 등	GSP 적용

대일 무역수지 현황

(단위 : 백만불, %)

구 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수 출	2,311	1,825	1,739	2,108	3,122	4,943
수 입	4,756	4,785	4,568	4,990	6,336	8,169
무역수지	-2,445	-2,960	-2,829	-2,882	-3,214	-3,226

한국소비자의 외국제품 인식도

순 위	국 가	선호도
1	일본	73%
2	독일	11%
3	한국	8%
4	미국	6%

자료 : 본회 가전제품 구매성향조사

외제를 사용하겠다는 소비자가 전체의 70%에 달하고 있다.

이중 외국산을 가장 선호하는 제품은 오디오로 중소업체인 오디오 업계의 영향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시장 개방시 외국산 구입 의사 조사

국사제품 애용	상황에 따라 외제 사용	외국제품의 애용
30%	63%	7%

자료 : 본회 가전제품 구매성향조사

6) 부품공급업체인 중소기업의 도산 속출 우려

우리 가전제품은 국내부품업계의 부품국산화 노력으로 70% 정도의 국산화가 진전돼 있다.

주요 제품의 부품국산화율

(단위 : %)

	1981	1985	1993	1994
C-TV	25	38	81	82
VCR	7	15	72	74
오디오	34	40	71	70

C-TV, VCR 등의 부품 등은 중소기업에서 생산, 납품해오고 있으나 다변화 해제시 일본제품이 유입될 경우 시장 상실로 인하여 국내 부품업계인 중소기업의 도산이 속출하고 있다.

더 나아가 대기업의 경영악화와 중소기업의 도산 속출은 최근들어 노사관계에서 그 틀을 마련해 나아가는 산업평화의 틀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VCR, 캠코더 등의 핵심부품인 CCD(고체촬상소자), 8㎜ 비디오헤드, 전IC 등은 일본에 절대 의존하고 있어 수입선 다변화 품목에서 해제될 경우 일본에서의 핵심부품 공급 중단으로 제품 자체의 생산이 차질이 있다.

부도업체 현황

(단위 : 개)

구 분	'93	'94	'95
제조업	2,850	3,133	3,553
전자산업	180	185	193

자료 : 한국은행

7) 일본의 완제품 국내시장 유입시 일본 기술이전 불가

전자제품중 VCR, 캠코더, CDP 등은 일본이 세계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독점화 품목임.

이러한 품목들의 수입선 다변화 제도 해제는 국내시장 잠식은 물론 일본의 對韓 기술이전 기피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특히 캠코더, VCR, CDP 등은 일본이 독주하다시피 세계시장을 좌우하는 현실에서 수입선다변화 해제는 한국으로의 기술이전 차단과 동시에 완전독점 체제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일본의 세계독점화 품목 현황

(단위 : %)

구 분	1990	1991	1992	1993
VCR	71	92	96	70
캠코더	80	100	83	76
CDP	95	94	89	80

주 : 세계 독점화 품목은 세계수요에 대한 일본 국내외 생산량의 비중임

8) 최근 가전제품의 국제경쟁력 더욱 악화

수 출 동 향

(단위 : %, 백만불)

품 목	'90년	'94년	'95년	증 가 율	
				'90/'95	'94/'95
가정용계	5,727	7,112	7,861	6.5	7.4
C - TV	1,347	1,622	1,818	6.2	12.1
V C R	1,140	1,480	1,499	5.6	1.3
음향기기	1,934	2,018	1,981	0.5	-1.8
전자렌지	534	780	769	7.6	-1.4
냉 장 고	177	379	407	18.1	7.5

수 입 현 황

(단위 : %, 백만불)

품 목	'90년	'94년	'95년	증 가 율	
				'90/'95	'94/'95
가정용계	724	987	1,621	17.5	38.2
C - TV	22	11	21	-0.9	97.9
V C R	29	43	63	16.8	47.1
음향기기	376	501	615	10.3	22.8
전자렌지	1	—	1	—	122.5
냉 장 고	19	48	67	28.7	39.3

최근의 가전업계는 폐기물 예치금제의 요율 인상, 원자재 가격의 상승, 임금인상 등으로 제조원가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다 엔화절하, 원화절상, 유통시장 개방등으로 대내외 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7.4%의 낮은 증가에 그치고 있는 반면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38.2%의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오디오의 경우 수출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해온 반면 수입은 22.8%의 높은 증가로 내수시장마저 크게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2. 건의내용

일본은 이미 전자제품의 70~80%를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그 중 말레이지아 등 동남아지역에서 60%이상을 생산하고 있어 원산지 판정기준 변화는 수입선다변화제도를 일시에 해제하는 것과 같아 우리 전자업계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 자명하며 미국, EU등 선진국의 경우 원산지 규정을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규정의 완화는 우리 전자업계의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케 하고 있다.

특히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일시 해제는 핵심부품의 대일 의존도가 높고 국민들의 일본제품 선호도가 매우 커 국내 가전시장의 잠식으로 인해 세트업체는 물론 부품공급업체인 중소기업의 도산으로 전자산업의 기반이 일시에 붕괴될 것이 확실시되어 원산지 판정기준을 현행대로 부가가치 기준과 주요부품 판정방식으로 유지시켜 주시고 수입선다변화 품목 해제도 당초의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해제시켜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받자 애국충정 꽃피우자 민족정기